

【P4-39】

캘리포니아 거주 재미교포 청소년의 동화에 따른 식이 섭취 양상 및 식행동 분석

송윤주, 백희영¹, 박혜련², C. Richard Hofstetter³, Melbourne F. Hovell³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식품영양학과¹,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 샌디에고 주립대학 보건대학원³

최근 동화(acculturation)에 따른 식이 패턴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수 민족이 다수 또는 이주한 나라의 식이 패턴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식이적 동화(dietary acculturation)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에 대한 연구에서 동화가 될수록, 전통적인 한국음식은 적게 섭취하고, 미국식 식이 패턴을 보이며, 여성에서는 음주와 흡연의 비율이 증가되고, 남성에서는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동화와 식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 거주 재미교포 중 만 12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494명을 대상으로 동화정도에 따른 식이 섭취 양상 및 식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로서 거주자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동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과 일반 사항 그리고 식품 선호도, 패스트푸드, 간식 횟수, 섭취 우유 종류 등의 식행동 및 주요 상용식품에 대한 식품 섭취 횟수에 관한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동화관련 설문항목(10문항)을 기준으로 집락분석에 의하여 동화가 진전된 그룹(more acculturated group, MAG)과 동화가 덜 진전된 그룹(less acculturated group, LAG)으로 나누었으며 대상자의 75%가 MAG로 분류되었다. MAG는 평균 연령이 LAG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성별분포에는 그룹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MAG의 81%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그들의 부모는 99%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의 평균 교육 횟수는 15년으로 대학정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내 연간 소득은 대상자의 80% 이상이 평균 40,000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행동 면에서는 동화가 진전될수록, 한국음식 또는 한국 식당 선호도가 낮고, 일일 간식 섭취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저지방 우유 섭취 비율이 증가하였다. 주요 상용식품에 대한 섭취 횟수를 비교해 보면, MAG 그룹은 쇠고기, 계란, 우유, 소다 섭취 횟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LAG 그룹은 밥, 김치, 커피, 돼지고기 섭취 횟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에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MAG 그룹에서는 빵, 치즈 또는 요거트, 튀긴 음식, 샐러드 드레싱, 버터 또는 마가린의 섭취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 거주 재미교포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동화가 진전되었으며, 그에 따라 밥, 김치보다는 빵, 쇠고기, 계란, 우유와 같은 서구식 음식 섭취 횟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 서구식 식이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재미교포 청소년 또는 유년기의 식생활 및 식이 패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화에 따른 식이패턴의 영향도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